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4, Vol. 21, No. 1, 27-51
http://dx.doi.org/10.16983/kjsp.2024.21.1.27

고등학생의 불안정 애착 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전 유 라 방학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남 숙 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 불안애착은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제), 공감능력(인지, 정서)과, 회피애착은 분노표현 중에서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감능력 중에서는 인지적 공감만이 분노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애착과 공감능력(인지, 정서), 인지적 공감과 분노표출 간에는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공감은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그리고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의 경우,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만 인지적 공감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인지적 공감이 고등학생의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개입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등학생의 분노표현을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

---

* 본 원고는 전유라(2023)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숙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Tel: (02) 910-6371, E-mail: sknam@kookmin.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독특한 입시문화로 대학 진학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분노와 같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부분과 관련된 발달과업 수행은 지연되고 있다(권혜진, 1995).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표현을 학습하지 못한 채, 이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인식하며 올바르고 적절한 표현하기보다 과도한 억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청소년의 비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로까지 야기되는 경향이 있다(박영주 외, 2010). 통계청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었고, 2021년 청소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여 11.7%였다. 이러한 자살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분노가 제시되고 있다(Puskar, Grabiak, Bernardo, & Ren, 2009; 유동환, 김민, 이지숙, 2021).

분노는 그 자체로서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며, 분노표현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희경, 현명호, 2009). 널리 알려진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채유경, 2001).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분노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대처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백윤미, 이봉건, 2013). 적응적인 분노표현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심리적 불편감이나 갈등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돕고, 불안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Novaco, 1976).

Spielberger(1985)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분노조절(anger-control)은 상대의 행동에 인내심을 보이거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분노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분노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의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마주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즉, 분노를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McCullough, Kuhn, Andrews & Kaplan, 2003). 둘째, 분노표출(anger-out)은 행동과 언어로 자신의 분노를 분노의 대상 또는 타인에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난 표정을 짓거나 자기 발을 구르는 등의 비공격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Kerr & Schneider, 2008). 마지막으로 분노억제(anger-in)는 속으로는 분노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드러내지 않고, 분노를 제공하는 상대를 피하거나 화난 이유를 말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는 분노 상황과 관련된 사고 및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보다 자기개방이나 자신의 감정노출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신현숙, 구본용, 2001). 그러므로 청소년이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가희,

2008). Novaco(1976)에 의하면 적절한 분노표현은 동기부여, 자기고양, 자아반성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분노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김가희, 2008; 김수진, 최인령, 2018; 김정희, 김형균, 2021; 장혜림, 2016)나 우울(정유진, 하은혜, 2014), 사회적지지(심송애, 김형균, 2022), 대인관계(심송애, 2021; 최윤경, 2015), 애착(김현주, 2009; 이선주, 2011;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김미영, 2012)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애착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소현, 여종일, 2021).

애착이란 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이다(Bowlby, 1973). 유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만한 사람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자기표상과 타인을 신뢰롭고 접근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타인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8). 이와 같은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애착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애착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가지는 회피애착 차원으로 나누어진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불안애착 유형은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걱정으로 만성적 불안을 경험하며, 회피애착 유형은 타인과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유아가 성장한 후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원, 2014; Bartholomew & Horowitz, 1991).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시기로, 사회에 나아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성인기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기의 애착은 이들의 학교적응과 대인관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채영이, 2006). 특히, 청소년기 애착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아동기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성 획득을 위해 상호성(mutuality)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한다(Asinsworth, 1989; 구유나, 홍지영, 2017).

따라서 최근 청소년 애착 관련 연구들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확대되는 애착대상(Hazan & Shaver, 1994)의 전환을 바탕으로 성인애착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구유나, 홍지영, 2017; 김정호, 2015; 김향기, 김혜순, 2017; 손태주 외, 2011; 전순초,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이루어진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인다는 애착유형에 대한 설명(Sperling et al., 1994; Fraley et al., 2000)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애착유형(불안, 회피)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애착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및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분노를 적게 표현한다고 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불안정 애착 집단의 분노와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안정 애착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esters et al., 2002). Milkulincer(1998)의 연구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 애착의 경우 분노표현 이후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타인에 대해 낮은 적대감을 경험하는 통제되고 기능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의 경우 분노조절이 어렵고 분노를 반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회피애착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경험하며 분노를 경험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생각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불안애착의 경우 분노억제와 분노표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의 경우 분노억제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손정락, 2009; 전혜경, 2014). 한편, 직접적으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애착유형과 관련이 높은 양육태도와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김은정(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분노조절을 잘하며 분노표출과 억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일수록 분노조절과 같이 적응적인 분노표현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문소현, 박영주, 2008),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이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기능적으로 분노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유형일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이 있다.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에서 Freud는 자아(ego)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말하며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박성희, 1993). 공감능력은 이타적인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정은숙, 2018),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선미, 2014).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구별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포함하여 이타적 행동을 유도하고,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성희, 2004; Singer, 2006).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감능력은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이타적 행동 등과 긍정적인 연관(Howard & Bennet, 1981)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공감능력은 우울 및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박지언, 이은희, 2008; Miller & Eisenberg, 1988), 공격성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련의 연구(김인형, 2015; 홍명숙, 어주경, 2013; De Wied, Goudena, & Matthys, 2005; Lesure-Lester, 2000)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는 반대로 낮은

공감능력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공격적 성격, 분열성 성격장애 등과 같은 조현병을 유발(Montag, Heinz, Kunz, & Gallinar, 2007; Shamay-Tsoory, Harari, Szepsenwol, & Levkovitz, 2007)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또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공감능력의 부족이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가정 아래 공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지신, 안지영, 오미경, 2013). 높은 공감능력은 우울 및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박지언, 이은희, 2008),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인형, 2015) 공감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행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감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소영호, 하상원, 노세진, 2016). 공감능력은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의 모든 관계에 주요한 요소이므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청소년기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는 정서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Davis, 1980). 즉, 공감을 단일한 개념이 아닌 인지, 정서 두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추론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Davis, 1980). 반면,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경험으로 타인의 정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그리고 인지적 공감과 분노표현 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련 연구를 보면(소명호, 하상원, 노세원, 2016), 공감의 차원에 따라 분노표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모두, 분노표현 중에서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경우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감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정서적 공감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공감은 분노억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으면, 분노억압 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애착과 공감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현, 2005; 이주혜, 조영아, 2014). 즉 애착유형은 분노표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능력은 생애 초기의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박성희, 1993, 2004). 따라서 애착유형은 공감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애착유형

과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아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이 기본 바탕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관계를 만들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자신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정자윤, 2010).

애착과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서지현(2005)의 연구를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보다 공감능력 수준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적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애착(불안. 회피) 수준이 높으면 공감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이주혜, 조영아, 2014; Britton & Fuendeling, 2005; Joireman et al., 2001; Mikulincer et al., 2001; Mikulincer & Shaver, 2005).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공감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안자경, 장문선, 2016;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정경아, 김봉환, 2010; Sealre & Meara, 1999; Trusty et al., 2005). 예를 들어 불안애착의 경우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나타났고, 회피애착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거나(안자경, 장문선, 2016) 혹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공감능력과 모두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아, 김봉환, 2010).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과 공감능력의 차원별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피)과 공감능력의 차원별(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먼저 앞서 제시한 변인들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불안정(불안, 회피) 애착유형은 분노표현 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개입은 중요하며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통한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을 고려할 때, 불안정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중간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시한다. 즉,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통해 분노표현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자, 불안정한 애착유형에 영향을 받는 변인인 매개변인으로 공감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 분노표현(표출, 억제, 조절)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인관계 상황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공감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각 변인의 하위 요인을 바탕으로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피)이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공감능력을 통해 분노표현 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각 유형 및 하위요인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조적 경로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불안정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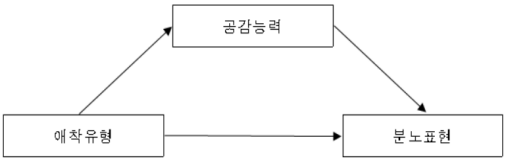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4일까지 4주일 동안 실시되었다. 총 180명의 응답이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177명(남 99명, 여 78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전에 해당 학교 관계자들(선생님,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설문 실시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설문에 앞서 응답에 대한 익명성과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고, 설문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설문지는 교사가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후 회수하였다.

측정도구

애착유형

애착유형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그리고 Brennand(2000)의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것을 박지선(2008)이 전문가 평정을 통하여 청소년용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개의 독립된 하위차원으로 나뉜다. 이 척도는 불안애착(18문항), 회피애착(18문항)를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단계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 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불안애착 .85, 회피애착 .7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불안애착 .92, 회피애착 .89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공감능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박성희(1994)가 번안하고 김지은과 박혜준(2016)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요소(14문항), 정서적 요소(14문항)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 문항의 예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가 있으며, 정서적 공감 문항으로는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가 있다. 김지은과 박혜준의 연구(2016)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0,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1~.78 분포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인지적 공감은 .83, 정서적 공감은 .74로 나타났다.

분노표현

분노표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XI(Srate-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바탕으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로 3단계까지 번안된 것을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이 한국 문화에 보다 적절하고 타당하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분노경험인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측정은 제외하고, 분노표현 3개의 하위척도로만 구성하여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suppression), 분노조절(anger-control)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단계 척도이다. '거의 전혀 아니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 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0)의 연구에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분노표출 .70, 분노억제 .66, 분노조절 .79 이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분노표출 .83, 분노억제 .79, 분노조절 .8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으로 신뢰도가 .84로 나타났고, 분노조절은 적응적인 분노표현으로 신뢰도가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0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대한 충족 여부를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 4.0의 모델 4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Hong, Malik과 Lee (2003)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4 미만이면 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충족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은 분노표출(r=.32, p<.001), 분노억제(r=.4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회피애착도 분노억제(r=.3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아지고, 불안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분노표출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r=.18, p<.05), 정서적 공감(r=.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r=.39, p<.001), 정서적 공감(r=-.2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r=-.16,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분노조절(r=.36,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 수준은 낮을 수 있겠으며, 분노조절 수준

표 1.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애착유형	불안애착	3.48	1.06	1.17	6.11	−.01	−.37
	회피애착	3.51	.91	1.50	5.61	.02	-.47
공감능력	인지적 공감	3.44	.61	1.71	4.86	.05	−.19
	정서적 공감	3.20	.51	1.71	4.36	−.06	−.36
	전체	3.32	.47	1.86	4.50	−.08	.21
분노표현	분노표출	2.10	.59	1.00	4.00	.37	.05
	분노억제	2.32	.58	1.00	3.75	.03	−.59
	분노조절	2.89	.54	1.00	4.00	−.63	.83
	전체	2.43	.34	1.00	3.13	−.56	1.09

표 2.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불안애착	1								
2	회피애착	.13	1							
3	공감능력	.31***	-.40***	1						
4	인지적공감	.18*	-.39***	.87***	1					
5	정서적공감	.35***	-.27***	.81***	.42***	1				
6	분노표현	.46***	.22**	.06	.04	.07	1			
7	분노표출	.32***	.04	-.07	-.16*	.07	.61***	1		
8	분노억제	.43***	.39***	-.01	-.10	.10	.82***	.40***	1	
9	분노조절	.06	-.05	.20**	.36***	-.06	.34***	-.37***	.04	1

*p<.05, **p<.01, ***p<.001

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조절(r=-.3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r=.4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0을 모델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애착유형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노표현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분석 실시에 있어, 선행 연구(Shrout & Bolger, 2002)에서 제시한 매개효과분석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매개효과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관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유의해야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Gelfand, Mensinger, & Tenhave,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상관관계 및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과 분노억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적 공감과 분노표현의 각 하위요인(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의)과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제외되었고, 불안정 애착유형(불안, 회의)와 분노표현의 각 하위요인(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제외되었다. 고등학생의 애착유형(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3과 같이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beta = .18$, $t = 2.44, p < .05$) 과 분노표출($\beta = .36$, $t = 5.08,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beta = -.23, t = -3.20,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불안애착이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공감이 분노표출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표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불안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이르는

표 3.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3.08	.155	19.85	.00	2.77	3.39
불안애착	.18	.04	2.44	.02	.02	.19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표출)						
상수	2.16	2.26	8.45	.00	1.65	2.66
불안애착	.36	.04	5.08	.00	.12	.28
인지적 공감	−.23	.07	−3.20	.00	−.36	−.08

$^{*}p < .05$, $^{**}p < .01$, $^{***}p < .001$,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4.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LLCI*	*ULCI*
총효과 (불안애착 → 분노표출)	.18	.04	.10	.26
직접효과 (불안애착 → 분노표출)	.20	.04	.12	.28
간접효과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	−.02	.01	−.05	−.002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5에서 −.002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의 총 효과가 .18($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인지적 공감이 통제되면서 불안애착과 분노표출의 직접 효과는 .20($p < .001$)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의 직접효과의 크기가 총 효과보다 크면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인데,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비일관적인 매개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억제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김하형, 김수영, 2020). 종합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불안애착과 인지적 공감,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고, 인지적 공감이 투입되었을 때도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애착이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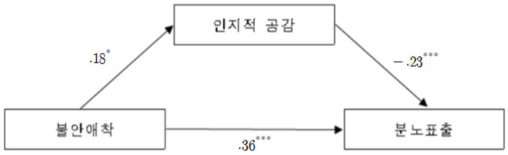

그림 2. 불안애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beta = .18$, $t = 2.44$, $p < .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인지적 공감도 분노조절($\beta = .36$, $t = 4.9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7에서 .07으로

표 5.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3.08	.155	19.85	.00	2.77	3.39
불안애착	.18	.043	2.44	.02	.02	.19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조절)						
상수	1.80	.24	7.59	.00	1.33	2.27
불안애착	−.004	.04	−.05	.96	−.07	.07
인지적 공감	.36	.06	4.97	.00	.19	.44

$^{*}p < .05$, $^{**}p < .01$, $^{***}p < .001$,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인지적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지적 공감이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조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불안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04에서 .069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7에서 .07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종합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불안애착과 인지적 공감,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간 직접적인 경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적 공감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애착이 인지적 공감의 완전 매개를 통해 분노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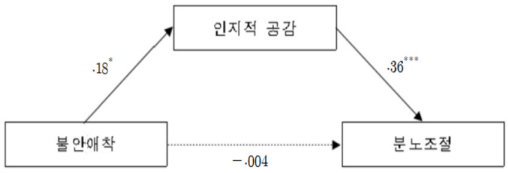

그림 3.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표 7과 같이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beta = -.39$, $t = -5.67, p < .001$)과 인지적 공감은 분노표출($\beta = -.17, t = 2.13, p < .05$)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은 분노표출과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표 6.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LLCI*	*ULCI*
총효과 (불안애착 → 분노조절)	.031	.04	−.04	.11
직접효과 (불안애착 → 분노조절)	−.002	.04	−.07	.07
간접효과 (불안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	.033	.017	.004	.069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7.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4.37	.17	25.88	.00	4.04	4.70
회피애착	−.39	.05	−5.67	.00	−.36	−.17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표출)						
상수	2.74	.39	7.08	.00	1.98	3.51
회피애착	−.03	.05	−.37	.71	−.12	.09
인지적 공감	−.17	.08	2.13	.03	−.32	−.01

$^{*}p < .05, ^{**}p < .01, ^{***}p < .001$,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8.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LLCI$	$ULCI$
총효과 (회피애착 → 분노표출)	.03	.05	−.07	.12
직접효과 (회피애착 → 분노표출)	−.02	.05	−.12	.09
간접효과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	.04	.03	−.0008	.1002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사용하였고,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표출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표출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008에서 .1002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매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beta = -.39, t = -5.67,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고, 인지적 공감은 분노조절($\beta = .40, t = 5.24,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피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2에서 .16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인지

표 9.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인지적 공감)						
상수	4.37	.17	25.88	.00	4.04	4.70
회피애착	−.39	.05	−5.67	.00	−.36	−.17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분노조절)						
상수	1.43	.33	4.27	.00	.77	2.09
회피애착	.11	.05	1.46	.15	−.02	.16
인지적 공감	.40	.07	5.24	.00	.22	.49

$^{*}p < .05, ^{**}p < .01, ^{***}p < .001$,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10.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LLCI$	$ULCI$
총효과 (회피애착 → 분노조절)	−.03	.05	−.12	.06
직접효과 (회피애착 → 분노조절)	.07	.05	−.02	.16
간접효과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	−.09	.03	−.16	−.05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적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인지적 공감이 분노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공감이 회피애착과 분노조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분노조절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16에서 −.05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에서 분노조절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02에서 .16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지적 공감이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회피애착과 인지적 공감,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간 직접적인 경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적 공감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을 완전 매개로 하여 분노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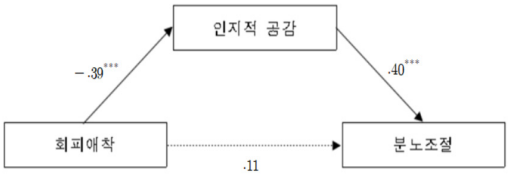

그림 4.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잘못된 분노표현을 예방하고 분노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인 애착유형, 공감능력, 분노표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고등학생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유형일수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성향이 높다는 기존 연구(김현주, 2009)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이 높은 불안애착일수록 분노를 표현할 때 역기능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불안 애착이 고등학생의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다(배성만, 2015). 회피애착은 분노억제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분노표출과 분노조절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회피적인 애착 형태를 나타낼수록 분노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적인 대처를 한다는 기존 연구(Mikulincer, 1998)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꺼리는 회피애착의 고등학생들이 분노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기능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분노표현은 불안정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고등학생들의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애착유형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경우 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결과(Trusty & Watts, 2005)와 일치한다. 이것은 애착 관계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연구한 이수현, 김동민 그리고 서영석(2006)은 불안애착인 상담자일수록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불안애착인 사람들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회피애착의 경우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는 이주혜와 조영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조태현(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일수록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착유형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해부학적 기초가 서로 다르며(Shamay-Tsoory, Aharon-Peretz & Perry, 2007), 심리적 장애의 유형에 따라 손상되는 공감 영역도 다르다고 보고되었다(박민, 2012).

공감과 분노표현 관계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분노표출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분노조절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과 인지적 공감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기존 연구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Jolliffe & Farrington, 2004). Jolliffe와 Farringto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능력은 분노감을 느낄 때, 타인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을 덜 사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분노표출을 낮춰주고, 분노를 기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과 분노조절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이현라(202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분노상황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고등학생들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여 분노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여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지적 공감과 분노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서적 공감의 경우 분노표현의 모든 하위요인(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이 분노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게 된다는 기존연구(김현주, 이정윤, 2011)처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독립적이고 다른 형태의 표현방식이기 보다는 두 표현방식 간의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분노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언제든지 억압해 왔던 분노감정이 한 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억압해 왔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현과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고,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불안정 애착유형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인지적 공감이 불안애착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매개로 작용하여 분노표출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회피애착과 분노표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불안애착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여주고, 높아진 인지적 공감능력이 분노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회피애착과 분노조절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이 인지적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능력을 낮추고, 낮아진 인지적 공감능력이 분노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고등학생일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고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피애착은 타인에게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피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Searle & Meara, 1999; Wei et al., 2005).

위의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불안정한 애착유형에 따라 인지적 공감능력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며(Leiberg &Anders, 2006), 인지적 공감능력이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분노표현 양식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낮으면 사소한 문제에도 즉각 감정이 타오르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상인 분노표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조절되지 않은 정서표현은 고등학생의 부적응을 유발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할 수 있다. 또 나아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토대로 부정적인 분노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등학생에게 개입하고자 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불안정 애착유형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하위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 양상과 공감의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학생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개입에 있어 애착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공감능력이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상을 기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역할 바꾸기와 같은 역할 수용을 통한 훈련과 같은 전략들(이주혜, 조영아, 2014)이 상담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피애착과 분노조절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제외하면, 회피애착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공감능력과 분노

표현 간의 경로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애착과 달리 회피애착은 분노에 대한 자각이 낮고 분노 정서에 대해 도피적이고 억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김현주, 이정윤, 2011; 전혜경, 2014)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고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독립성, 주체성, 다양성 등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최근의 고등학생들은 가장 독립적이며 개인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타인과의 거리 유지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관계에 대해 보다 독립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향이 설문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대상이 서울 소재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결과를 모든 고등학생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하위요인 중에서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두 개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측정하여 공감능력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불안애착과 분노표출과의 관계, 회피애착과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비일관적인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공감능력은 분노표현양상(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후속연구에서 측정 변수들 및 표본집단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감능력 척도의 차원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를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설문을 위한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응답자의 반응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시간에 쫓겨 응답할 시 참여자들의 낮은 이해도, 문항의 오해석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고희경, 현명호 (2009).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 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1), 97-116.

구유나, 홍지영 (2017). 고등학생의 성인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2), 263-277.

권혜진 (1995).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가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 (2012).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현 (2013). 보건계열 여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사회과학 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9(1), 23-37.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진, 최인령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심교과교육연구, 18(4), 397-414.

김은정 (2001). 아동의 분노표현방식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가정환경.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인형 (2015).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공감능력 및 회복탄력성이 폭력태도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4), 23-48.

김지은, 박혜준 (201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의 잠재적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인지적 특성 비교. 아동학회지, 37(4), 69-81.

김정희, 김형균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분노 표현 간의 관계. 實科教育研究 27(1), 119-136.

김지신, 안지영, 오미경 (2013). 아동의 공감능력,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구지향이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20(8), 277-301.

김하형,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김향기, 김혜순 (2017).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및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인지발달중재학회지, 8(2), 143-162.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12(3), 965-981

문소현, 박영주 (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43-149.

문정윤 (2005). 중학생의 부, 모, 또래 애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 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박성희 (1993).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이해. 서울: 원미사.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박소현, 여종일 (2020). 청소년의 애착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31-57.

박영주, 한금선, 신나미,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 신현정 (2010). 청소년의 분노·분노표현 유형과 정신·신체·사회적 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9(1), 105-115.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

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언, 이은희 (2008). 청소년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백윤미, 이봉건 (2013). 청소년기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과 공격행동: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4), 103-121.

서지현 (2005).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소영호, 하상원, 노세진 (2016). 대학 운동선수의 공감능력이 분노표현 양식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413-430.

손태주, 박태수, 김성봉 (2011). 중학생의 애착유형과 전문적도움추구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191-202.

송수미, 현명호, 윤미숙 (2009). Brennan에 의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7(1), 35-44.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심송애, 김형균 (202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분노표현방식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관계. 敎育論叢, 59(1), 1-30.

안자경, 장문선 (2016). 성인애착과 이성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3), 363-394.

이경순, 김교헌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이선미 (2014).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감능력, 정서상태, 직무만족도 차이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주 (2011).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이현라 (2022).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낮은 자기애 집단에서 인지적공감이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641-666.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정서심리학. 서울: 법문사.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학회지, 22(10), 261-287.

유동환, 김민, 이지숙 (2021). 한국판 청소년 분노유발상황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20-532.

장혜림 (2016). 중산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3),

95-122.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Ⅳ. 한국미술치료학회, 7(1), 33-50.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정명실 (2003). 아동의 공감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연희 (2012). 상담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유사성 지각이 내담자의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순초 (2010). 청소년의 성인애착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특성화고등 학교를 중심으로 -.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혜경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 간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73-199.

정유진, 하은혜 (2014).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18.

정은숙 (2018).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 문제행동 지도와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자윤 (2010). 청소년의 애착과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태현 (2017).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공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영이 (2006).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 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유경 (2001). 사회적 지지 및 결과 예측적 사고가 청소년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2(1), 117-132.

최윤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및 분노표현방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신애 (2013).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 2, 1-429.

Bowlby, J. (1988). A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8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rgrative overview. In J. A.

Sim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46-76.

Britton P. C., Fuendeling J. M. (2005). The relations among varieti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components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5), 519-530.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De Wied, M., Goudena, P. P., & Matthys, W.(2005). Empathy in boy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8), 867-880.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Gelfand, L., Mensigner, J., & Tenhave, T.(2009). Mediation analysis: A retrospective snapshot of practice and more recent direction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6*(2), 153-176.

Hazan, C., & Shaver, P. R. (1994). Author's response: Deeper into attachment theory. *Psychological Inquiry, 5*, 68-79.

Howard, J. A., & Bennet, M. A. (1981). Arousal of empathy and subsequent generos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8*, 307-318.

Joireman, J. A., Needham, T. L., & Cummings, A. (2001). Relationships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empath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 63-80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Kerr, M. A., & Schneider, B. H. (2008). Anger ex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559-577.

Leiberg, S., & Anders, S. (2006). The multiple facets of empathy: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In S. Anders, G. Ende, M. Junhhofer, J. Kissler, & D. Wildgruber (Eds.), *Progress in brain research, 156*, 419-440.

Lesure-Lester, G. E. (2000).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and behavior comp-liance among abused group home youth.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1*(2), 153-161.

McCullough, L., Kuhn, N., Andrews, S., Kaplan, A., Wolf, J., & Hurley, C. L. (2003). Treating affect phobia. A manual for short-term Dynamic.

Meesters C, Muris P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ported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9,* 231-235.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513.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Montag, C., Heinz, A., Kunz, D., & Gallinar, J. (2007). *Self-reported empathic abilities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92*, 85-89.

Novaco, R. W. (1976). The function and Regulation of Arousal of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10), 1124-1127.

Puskar, K., Grabiak, B. R., Bernardo, L. M., & Ren, D. (2009). Adolescent coping across time: Implications for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0*(9), 581-586.

Shamay-Tsoory, S., Harari, H., Szepsenwol, O., & Levkovitz, Y. (2007). Neuro psycho-logical evidence of impaired cognitive empathy in euthymic disorder.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

Singer, T. (2006). The neural basis and ontogeny of empathy and mind reading: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0*(6), 855-863.

Spielberger, C. D.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5-30.

Spielberger., C. D., Krasner., S. S.,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Springer Verlag, USA.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Trusty, J., Ng, K. M., & Watts, R. E. (2005). Model of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3*(1), 66-77.

원 고 접 수 일 : 2023.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27.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4. 25.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4, Vol. 21, No. 1, 27-51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Type and Anger Exp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YooRa Jun[1)] Suk Kyung Nam[2)]

[1)]Banghak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2)]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that empathy h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insecure attachment type and anger express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177 students in their second year of high school from three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PROCESS macro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the insecure attachment types, anxious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types of anger expression, anger-out and anger-in, and both types of empathy, cognition and emotion, while avoidant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in. Only cognitive ab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 control. Avoidant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cognition and emotion and cogni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Second, cogn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ger-out, and anger control, respectively. Cognition on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anger control. Thus, cognition predicted anger-out and anger control in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s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expressing anger appropriately. This paper discusses this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 attachment type, empathy, anger expression